
끝났으나 끝나지 않은 이야기, 제1회 축산·수의 분야 취업·창업 박람회

고객홍보팀





제1회 축산·수의 분야 취업·창업 박람회가 10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과 야외 광장에서 개최됐다. 정부 3.0에 따른 협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축산자조금연합·축산물품질평가원이 공동 주관한 행사다.

‘정부3.0, 축산·수의 분야 취·창업 정보의 장(場)’이라는 주제로 추진된 이번 박람회는 ‘오늘, 내 일(JOB)을 잡자!’를 슬로건으로 축산·수의 분야만을 위한, 축산·수의 분야만의 첫 취업·창업박람회로서 마련됐다.

그래서인지 박람회에는 축산·수의 분야의 다양한 기관/업체가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총 110여 개 곳이 참가하며 행사의 내실을 높였다. 또한 관련 고교/대학을 비롯한 청년층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행사장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이번 박람회는 축산·수의 분야의 기업들과 취업·창업 희망자 간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들의 인재채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축산·수의 분야 취업·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그 목적에 맞게 행사장은 크게 취업관·창업관·홍보관으로 구분해 운영됐다.

이중 가장 요지인 대강당 내 대부분을 차지한 취업관은 생산부터, 가공, 유통 등 축산 전 과정은 물론 동물약품, 사료 등 축산·수의와 그 전·후방 산업까지 한자리에 모여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각 분야별 취업 상담을 진행했다. 취업희망자들은 리플릿이나 박람회

자료집을 손에 들고 원하는 부스를 찾아다니며 취업 정보 수집에 열중했다. 통로 곳곳에 마련된 휴식용 의자는 빈 곳 없이 참가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자료집의 정보를 확인하는 한편 부스에서 들은 이야기를 추가로 기재하고, 상담에 앞서 질문 사항을 미리 정리하기도 하며 행사에 열을 더했다. 현장 채용을 진행한 업체들이 있어서인지 정장을 갖춰 입고 기업부스를 찾는 이들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창업관은 대강당 로비와 외부광장에 설치돼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잡았다. 창업 컨설팅, 외식창업 소개, 창업 모델숍 운영 등을 통해 생산 분야, 외식 분야 등의 다양한 창업 정보를 제공했는데, 특히 창업에 성공한 2030 젊은 농장주나 창업주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 관심을 모았다. 이들은 창업 사례를 소개하고 참가자들과 1:1 대화를 나누며 관련 정보를 나눴다. 일부는 부대행사인 소그룹 강의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만나기도 했다.

창업 전문 컨설턴트나 2030 농장주/창업주와 마주 보고 앉은 참가자들은 밝게 웃다가도 곧 표정을 굳히기 일쑤였다. 위가 저리 심각한가 싶어 슬쩍 귀를 기울여 보니 창업의 표면적인 문제뿐 아니라 좀 더 심층적인 내용, 창업에 직결 될 수 있는 귀한 정보들까지 야김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이 또한 축산·수의에 전문화된 취업·창업 박람회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창업 모델숍이나 홍보관은 야외 광장에 꾸며졌는데 눈과 입이 행복한 곳이었다. 창업모델숍으로는 메뜨러라이, 푸드트럭, 반려동물, 축산물 외식 창업 등 다양한 창업 사례들이 관람객을 맞았다. 축산업의 변천사, 말산업, ICT축산, 바이오산업 등의 전시와 어우러진 축산 관련 단체들의 홍보 프로그램과 시식코너도 다채로웠다.

창업 모델숍이나 홍보관은 시연이나 시식을 함께 했는데, 시식이라고 찜찜 입맛만 다시게 잘라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반쪽, 혹은 통째로 거침없이 내준 곳이 대다수로 인심이 넘쳤다. 치킨이나 토띠아롤, 핫도그, 햄버거 등을 우유나 맥주와 함께 먹고 치즈 조각이나 아이스크림 등으로 입가심을 하는 코스, 축산이기에 가능할 정식이다.

이 밖에 축산·수의 분야의 내 일을 잡겠다고 내건 만큼 미래의 주인공인 관람객들을 배려한 '이력서&면접 컨설팅', '사진 촬영', '면접 메이크업' 등의 체험프로그램과 '소그룹 강의'도 반응이 뜨거웠다.

행사 이틀, 이모저모를 살피다 보니 취업·창업 무대의 주인공인 청년들은 남다른 감흥을 느끼는 듯했다. 학교에서도 단체로 참가했지만 사전신청을 놓쳐 기차를 타고 따로 올라왔다는 전북대 동물자원학과 4학년 남정희·신민경 씨는 "취업 준비하는데 정보가 부족해



개막식 사전 공연 - 신스틸러 홍보관 한우



창업 컨설팅 중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다. 박람회 개최 소식에 '진작 좀 해주지' 싶었다."며 순간 울컥한 마음까지 드러냈다. 교내 취업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다는 중앙대 동물생명학과 4학년 임진혁 씨는 "박람회 개최 소식에 동아리 식구들과 다 같이 단체로 참가했다."며 "참가 학우들은 실질적인 채용정보도 얻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한다. 참여하지 못한 학우들은 내년에는 꼭 참여한다 하니 내년에도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참여업체 중 한 곳으로 현장 서류 접수까지 해 특히 북적였던 부스 중 하나였던 가족위생방역지원 본부의 인사담당자는 "최근 다른 취업박람회도 참가했었지만 이번 박람회는 전문화되어 있어 더 좋았다. 특히 축산·수의에 대해 아는 사람이 오니 상담하기 편해,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며 축산 관련 기관으로서 축산·수의 분야에 특성화된 취업·창업 박람회의 개최를 반겼다.

제1회 축산·수의 분야 취업·창업 박람회는 이틀로 끝났지만 청년층의 취업·창업을 향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축산의 미래에 대한 관련 업계·학계 등의 고심도 계속될 것이다. 풍성하고도 뿌듯했던 이들이 더 많은 이들이 축산·수의 분야에서 멋지게 내 일(job)을 찾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



면접 메이크업 중



홍보관

